

‘써니’ 쏘니

〈눈부신〉



“바로 이거야~” 토트넘 손흥민이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4-0으로 앞선 후반 25분 시즌 10호골을 터트린 후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 EPL 본머스전 멀티골 ... 프로 데뷔 최단 기간 10골
이달에만 7득점 2어시스트로 월간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
개인 월간 리그 최다골·최초 연속 멀티골...경기마다 새역사

불과 12월 초까지 골 가뭄에 시달리던 손흥민(토트넘)이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시즌 10호 골 고지를 밟았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23분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생산했다. 그는 팀 동료 카일 워커 피터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서클에서 오른발 슛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다. 슈팅 공간이 나오자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4-0으로 앞선 후반 25분에 쐐기 골을 넣었다. 팀 동료 해리 케인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패스

한 것을 루카스 모우라가 슈팅으로 연결했고,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흐르자 손흥민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이날 2골을 몰아넣으며 올 시즌 10골 고지를 밟았다. 리그에선 7골을 기록했다. 2015-2016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손흥민은 당해 시즌 8골을 기록했고, 2016-2017시즌엔 1월 29일에 시즌 10호 골을 넣었다. 2017-2018시즌엔 1월 5일에 10번째 골을 장식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 2018 러시아 월드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여파로 체력문제를 드러내며 좀처럼 득점을 쌓지 못했다. 11월까지 3골에 그치며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가장 느린 득점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특유의 ‘몰아넣기’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는 12월에만 무려 7골을 넣었고, 이중

리그에서만 6골을 뽑아냈다. 특히 지난 20일 아스널과의 리그컵 경기부터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는 무서운 집중력을 선보였다. 손흥민은 24일 에버턴전에 이어 이날 본머스 전에서도 2골을 뽑아냈는데,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 멀티 골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시즌 2경기 연속 멀티 골을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경기 포함돼 있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역대 월간 리그 최다 골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전까지 5골이 최다 기록이었다. 월간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도 바뀌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4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올해 12월엔 6골 2어시스트로 기존 기록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의 득점이 팀 성적과 직결된 영양 만점의 공격포인트라는 점도 눈에 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은 이날 본머스에 5-0 대승을 거두면서 같은 시간 레스터시티에 열미를 잡힌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리그 2위 자리를 꿰찼다. /연합뉴스

‘이달의 선수상’ 손흥민-살라 점진

6골 2어시스트 vs 5골 3어시스트...30일 마지막 경기서 결판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생애 3번째 이달의 선수상 수상에 성큼 다가간 손흥민(토트넘) 앞에 ‘끝판왕’이 나타났다. ‘파라오’ 무함마드 살라(리버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까지 나란히 4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손흥민과 살라는 27일 경기에서 나란히 공격포인트 2개를 더하며 12월 최다 공격포인트 동률을 기록했다. 두 선수 모두 12월에 한 경기씩 남겨두고 있어 마지막 경기에 따라 트로피의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본머스와 경기 이전까지 총 3명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팀 동료 해리 케인과 아스널 공격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살라와 똑같이 4골 2어시스트를 12월에 기록했다. 이달의 선수상에 가장 가까이가간 이는 손흥

민이다. 6골 2어시스트로 4명 중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다. 특히 페널티킥으로 단 1골도 넣지 않는 등 골의 영양가가 좋다. 손흥민이 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과 토트넘이 리그 2위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가산요인이다. 손흥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살라다. 그는 5골 3어시스트를 기록해 공격포인트에서 동률을 이뤘다. 다만 득점에서 밀리고 페널티킥으로도 골을 넣었다는 점이 흠이다. 물론 공격포인트가 이달의 선수상 수상 기준이 아닐뿐더러,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어 두 선수의 역전 수상 가능성도 있다. 손흥민의 대진은 나쁘지 않다. 그는 30일 울버햄프턴과 12월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울버햄프턴은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10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박항서 “아시안컵, 목표는 16강”

베트남 축구대표팀 카타르서 전훈련캠프 ... 31일 필리핀과 평가전

“1승1무1패로 16강에 올라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베트남 축구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박항서 매직’을 앞세워 ‘동남아시아 축구’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내년 1월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하는 2019 아시안컵에 출전을 위해 27일 베트남을 떠나 카타르 도하로 향했다. 베트남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내년 1월 4일

까지 담금질을 마친 뒤 UAE로 이동해 아시안컵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은 그동안 아시안컵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0년 2회 대회 이후 무려 47년 만인 2007년 아시안컵(16개국 출전) 본선에 나섰지만, 공동 개최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자격이었고, 공동 개최국 가운데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해 8강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2011년 대회와 2015년 대회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 박항서 감독은 예선 중반부터 지휘봉을 잡아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나서

는 베트남 대표팀에 거는 팬들의 기대감이 엄청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인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란, 이라크, 예멘과 함께 조별리그 D조에 속했다. 이란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가장 높은 29위다. 이라크는 88위, 예멘은 135위다. 베트남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10시 30분 이라크와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이란(12일 오후 8시), 예멘(17일 오전 1시)과 잇달아 맞붙는다. /연합뉴스